

이름 양영진

1. 파견대학 관련

파견대학	일본 Ehime University
파견기간	2011. 10 ~ 2012. 8
귀국여부	네 (0) 아니오 ()
수강과목(2011 Fall) 및 과목별 수강평가	<p>[일본사정A2] 유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다른 유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나 우리가 필요한 곳 등등을 자전거를 타며 가볍게 소풍 가는 기분으로 들었기 때문에, 꼭 필요했던 수업이기도 하며 재미있었던 수업이었다.</p> <p>[일본어구두표현D2, 일본어독해작문D2] 레벨테스트로 나누어져 들어갔던 수업으로, 구두표현에서는 일본인 서포터와 함께 해서 정말 말을 많이 할 수 있던 기회가 되었다. 독해작문은 수업 방식은 별로 맘에 안 들었지만 열심히 했다.</p> <p>[일본어한자어휘B2] B2는 레벨이 아니라 클래스 이름뿐이었다. 각각의 레벨에 맞는 한자를, 일본인 서포터와 함께 공부하는 수업이라 매우 만족스러웠다.</p> <p>[일본어표현2] 처음 와서 듣는 진짜 일본어로 이루어지는, 일본 학생과 함께 듣는 수업이었다. 오자마자 들은 수업이라 발표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매주 작성해야 하는 페이퍼가 있어서 조금 힘들었다.</p> <p>[언어 지도법] 전공수업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본 어휘나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이해하기 쉬웠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워낙 쉽게 잘 풀어 설명해주셔서 더 공부하는데 수월했다.</p> <p>[보육기초기능3] 한국에서 전혀 접해보지 못한 수업방식이었다. 무언가를 만들지를 학생들이 정하고 그 시간동안 학생들과 한 명의 선생님이 상호작용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 가는 시간이었다. (작품이라고 한정되기 보다는 음식에서부터 장난감 등등) 정말 재미있었다.</p>
수강과목(2012 Spring) 및 과목별 수강평가	<p>[일본어구두표현E1, 일본어독해작문E1] 구두표현에서는 일본어 서포터가 없어지고, 내가 만나보고 싶은 일본인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PPT로 정리해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수업은 수업이간 이외에도 수업을 연장하거나 시간이 맞지 않으면 수업 이외의 시간에 만나 인터뷰를 하는 등 시간을 많이 할애 한 수업이었다.</p> <p>독해작문의 수업은 선생님이 수업의 반을 개인이야기로 쓰고, 나머지 반을 일본어공부를 했다. 그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은, 우리가 일본 학생인 것 마냥 차려, 열중쉬어 등을 시켰다는 점이다.</p> <p>[일본어한자표현B1, 일본어한자어휘B1] 위에서도 했던 수업과 같이 각각의 레벨에 맞는 한자를, 일본인 서포터와 함께 공부하는 수업이</p>

	<p>라 매우 만족스러웠다.</p> <p>[유아의 음식과 영향] 너무 전문적인 분야의 수업이었다. 잘 모르고 수강해서, 시험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요리실습을 하는 부분은 좋았다고 생각한다.</p> <p>[유아심리학, 유아학 연구1] 전 학기에 들었던 언어 지도법을 하셨던 교수님의 수업으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하기도 쉬웠다.</p> <p>[수화커뮤니케이션1] 일본의 수화라서 한국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정말 재미있게 배웠다고 생각한다. 유학생인 것을 배려해, 실기 시험은 똑같이 보았지만 필기시험을 Report로 대체해주셨다.</p>
Tuition 외 지출한 비용	

2. 생활전반 관련

숙소	학교기숙사(미유키기숙사)
숙소비용	18,000엔
숙소평가	새로 지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깨끗한 상태여서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각 방마다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붙어있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었다. 하지만 방이 너무 좁았던 점과 다 같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던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없었다.
식사	근처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거나, 학교 식당을 이용했다. 집에 있을 때는 만들어서 먹었다.
식사비용	학교 안 식당을 이용하면 한 번에 500엔 정도 주변 식당을 이용하면 한 번에 800엔 정도
식사평가	조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좁았기 때문에 별로 요리를 해 먹지 않았다. 그리고 학교 식당은 양도 적은데 비쌌다. 하지만 매번 메뉴도 바뀌고 계절 별로 바뀌었던 점은 좋았다.
보험	자매학교에서 보험을 들었다. 2,000엔이었지만 해지할 때 다시 2,000엔을 돌려받는 형식이었다.
한달 생활비(대략)	매달 수도세, 전기세는 각각 3,000엔씩 총 6,000엔 핸드폰은 매 달 넉넉히 3,000엔정도 들었다.

3. 교환학생 파견 전 한국에서 미리 알고 갔으면 좋았을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예) 이것만 알고 갔어도 그런 시행 착오는 피할 수 있었을텐데...

일본 유학을 가기 전에 꽤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갔기 때문에 이렇다 할 문제는 없었지만, 하나를 들자면 한국에서 임대 핸드폰을 해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일본에 가서 핸드폰을 사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했었다.

결국 나는 일본에서 핸드폰을 샀다. 그리고 일본에서 만난 다른 학교에서 온 유학생도 일본에서 핸드폰을 샀지만 플랜이 달랐다. 나는 한국에서처럼 다달이 쓴 만큼 나가는 반면에, 다른 유학생은 일정 금액을 충전해서 쓰는 방식이었다.

내가 비교해 보았을 때, 나는 2년동안 핸드폰을 쓰는 것이 약정으로 핸드폰 값이 0엔이되는 대신에 해지할 때 만 엔이라는 해약금을 내야 하지만, 다른 유학생의 경우에 핸드폰은 일정 값을 주고 사지만 해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위의 예를 잘 보고 교환학생으로 갈 때 어떻게 하면 쌀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4. 결과보고서 (자유형식) : 글자크기 10, A4 1장 이상

사실 어떻게 보면 유아교육과 학생이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간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러 가는지 아마 의아해 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나도 교환학생으로 가기 전 까지는 확실하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지, 그냥 일본으로 일본어를 공부하러 가고 싶은 것인지, 문화를 알고 싶어 가고 싶은 것인지 확실한 목표를 세우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유학을 하는 동안, 실제로 일본의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교육과의 수업들을 직접 들어보면서, 또 에히메대학교의 부속유치원이나 에히메대학교 안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이나, 학교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유치원을 참관해 보면서, 한국에서 배웠던 비교유아교육. 즉, 일본과 우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내가 있었던 곳은 예전부터 지진이나 해일 등의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다행히 내가 있는 일년 동안 지진이나 태풍 등의 피해가 하나도 없었고, 사고나 사건 없이 지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